

원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의 안보상황에 주는 시사점 : 복합위기와 전략적 대응을 중심으로

서창원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서창원 (scw890@naver.com)

### 요약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분쟁을 넘어 21세기 국제안보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전쟁의 장기화가 한국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① 신냉전 구도의 심화와 안보·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 ② 군사력 사용 규범의 약화와 핵 억지력의 불확실성 증대, ③ 북·러 군사협력의 질적 변화(파병 및 기술이전), ④ 한미동맹 및 다자안보협력의 재편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은 유럽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방산 수출의 기회 요인을 활용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와 북한의 핵 고도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방산 수출과 안보 전략을 연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며, 자체적인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제언한다.

핵심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신냉전, 북·러 군사협력, 방산 수출, 확장 억지, 포괄적 안보

### 차례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국제안보질서 변화와 한반도 주변 안보·전략 환경
  - 2.1. 국제사회의 신냉전 가속화와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 2.2. 군사력 사용 규범의 약화와 억지력의 불확실성
3. 북·러 밀착과 북한군 군사위협의 질적 변화
  - 3.1. 북·러 군사협력의 질적 고도화
  - 3.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 재평가
4. 한미동맹·다자안보협력의 재편
  - 4.1. 한미동맹의 질적 전환
  - 4.2. 한미일 및 NATO와의 안보협력 강화
5.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공급망 측면의 영향
  - 5.1. 에너지·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취약성
  - 5.2.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은 K-방산에 큰 기회
6. 결론
  - 6.1. 시사점
  - 6.2. 한반도 위기관리 대응방향 제언

### Open Access

접수일: 2026년 1월 26일  
수정일: 2026년 2월 03일  
게재승인일: 2026년 2월 03일  
출판일: 2026년 3월 31일

Copyright: © 2026 방산안보연구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CC BY 4.0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iginal Article

# Implications of the Russia-Ukraine War on South Korea's Security Situation: Focusing on Complex Crises and Strategic Responses

Chang-weon Suh

Ph.D. Candidate, Department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Myongj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ang-weon Suh (scw890@naver.com)

## ABSTRACT

The Russia-Ukraine War, serving as a critical turning point in the 21st-century international order, signifies the end of the post-Cold War era and presents complex security challenges to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war, with a focus on the deepening military alignmen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the re-evaluation of asymmetric threats such as drone warfare. In the midst of these crises, the research highlights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he expansion of defense industry exports. While many nations reduced their armaments after the Cold War, South Korea maintained its large-scale conventional firepower and production capabilities, which has led to a surge in arms exports to Europe, including major contracts with Poland. The paper argues that leveraging these defense industry exports is crucial for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alliances. Conclusively, it suggests that South Korea must pursue a strategy of 'principled flexibility,' balancing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ies with strengthened alliances to navigate the evolving global security landscape effectively.

## KEYWORDS

Russia-Ukraine War,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Complex Crises, Defense Industry Exports, Strategic Response, K-Defense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2026년 현재까지 지속되며 전후(戰後) 국제 질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전쟁은 탈냉전과 세계화 질서 30년의 종언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되며 미국 주도로 유지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힘을 가진 국가에 의해 언제든지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전쟁의 양상은 소모전 형태를[1] 띠는 동시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량 무기 지원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직간접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러-우 전쟁은 EU 소속 국가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K-방산'의 수출 확대라는 경제적 기회가 존재하는 반면, 북-러 밀착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증대라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중적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 도전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교·국방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시부터 2025년 말까지의 국내외적 안보 상황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그리고 러-우 전쟁이 초래한 ① 국제 안보 질서의 거시적 변화, ②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결탁 양상, ③ 한미동맹 및 다자 안보 협력의 변화, ④ 에너지 및 경제 안보 파급 효과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주요 학술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논문, 브리핑자료 및 보고서 등 관련 문헌과 언론자료를 연구하고,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동향과 북한-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을 분석하여 한국과 북한 주변국과의 복합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취해야 할 안보정책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 2. 국제안보질서 변화와 한반도 주변 안보·전략 환경

### 2.1. 국제사회의 신냉전 가속화와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을 둘러싼 강대국 간 '신냉전' 확대 속에 국제적인 역학의 변화가 표출되었는데, 이는 '신냉전' 구도 속에 민주주의 블록을 중심으로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양자 세력간, 혹은 미국, EU 대 중국, 러시아 양대 블록이 서로 상당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어려운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2]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 미-소 냉전과는 다른 형태의 '신냉전(New Cold War)'으로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위시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북한을 축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탈동조화(Decoupling)의 심화이다. 2019년 파이낸셜타임즈는 디커플링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바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상호 의존이 줄어들고 세계화가 후퇴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권위주의 세력과 자유 진영 간의 대립을 촉발하였는데, 미국과 EU는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켰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벗어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러 중심의 블록화도 선명해졌다. 중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며 국제무대에서 중-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좋

은 예이다.[3] 이는 이념적 대립뿐만 아니라 기술, 공급망, 금융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의 대립을 특징으로 한다.

러-우 전쟁으로 심화되는 북러 협력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2023년 3국 간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최초 시행하는 등 3국 간의 안보·국방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4]

## 2.2. 군사력 사용 규범의 약화와 억지력의 불확실성

### 2.2.1. 재래식 전쟁의 귀환과 소모전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 화력은 단순한 전술 수단을 넘어 전략적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포병전은 단순한 화력 교환이 아니라 정보수집 능력, 기동성, 통신망 유지 등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으로 포병전력의 부족은 전선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기갑을 많이 보유한 포병 중심 군대인데 반하여 우크라이나군은 자주포와 전인포의 혼재, 대포병 레이더 부족 등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비해 열세하여 러시아에 전쟁의 우위를 넘겨주고 있는 양상이다.[5] 현 시점에서 러-우 전쟁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러시아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포병 화력과 기갑 전력의 여전히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EU는 탄약생산지원법에 따라 2025년 말까지 NATO 표준인 155mm 포탄의 현지 생산능력을 200만 발로 늘리는 목표를 실행 중이라는 것은 이러한 안보 위기감의 발로이다.[6]

한국의 방위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대규모 화력전 수행 능력과 즉각적인 무기 생산 라인을 유지해 온 전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이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2.2. 핵 억지력의 한계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효과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핵보유국(러시아)이 비핵보유국(우크라이나)을 침공하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핵 사용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는 핵 사용이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1970년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가 출범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전후하여 핵무기 보유국 간에 핵무기 보유국들이 함부로 핵무기 비보유국들을 침략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핵 위협을 함부로 가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만들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것이 깨진 첫 번째 사례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러시아 핵 전력의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라브로프 외교장관 등도 상황에 따라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무기가 가지는 효용성을 학습하고 정치적 협박 수단으로 ‘핵 그림자’(Nuclear Shadow: 국제정치·안보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들의 전략 행동을 제약하고 형성하는 효과를 의미)의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2022년 9월 8일의 “핵무력정책법” 공표를 통해 사실상 핵무기를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7]

### 3. 북·러 밀착과 북한군 군사위협 의 질적 변화

#### 3.1. 북·러 군사협력 의 질적 고도화

2024. 6. 1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서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6.19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동 조약 제4조에서 체약국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타방의 즉각적이고 모든 보유 수단을 동원한 군사원조를 명시하였다는 것이다.[8]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10월부터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과 북한 무기의 러시아 지원이 이루어졌다.

첫째, 북한군 파병과 실전 경험 축적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제하의 보도자료[9]를 통해 북한이 2024. 10. 8.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2024. 10. 8.~13간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이 이동하는 것을 참전의 개시로 판단하고 동 기간 중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특수부대 병력 1,500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되어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센스크에 분산되어 현지 적응 훈련을 통해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베리아 야쿠티야 지역 주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만 3,000여개 이상의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살상 무기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덧붙여서 북한제 무기 122mm·152mm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로켓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하여 전장에서 수거되었다고 공개했다. 국내외 여러 언론보도 등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러시아군과 혼성 편제를 이루거나 독립 작전을 수행하며 현대전의 필수 요소인 드론 운용, 참호전, 시가전 전술을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러시아에서 실전경험을 쌓은 북한군은 정규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군에 있어 실로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북한 무기의 러시아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북한 연합군의 화력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북한 군수공장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대북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 러 우수리스크 군사시설(연병장 내 북 인원 추정 400여명 운집)[9]



그림 2. 우크라이나 군이 획득한 북한제 KN-23 잔해[9]

둘째, 핵심 군사기술의 이전(Technology Transfer)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러-우 전쟁 파병으로 얻게 될 직접적인 외화 소득은 연간 3.2억~1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입장에서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해킹, 군수물자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액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훼손, 대미관계 등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파병을 택한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량살상무기 기술,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체계 도입, 대북제재로 막혀있는 군사설비, 부품, 자재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10]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 받은 기술이 대륙간탄도탄, 핵미사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제조에 사용된다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점점 더 북한에 유리한 형세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 3.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 재평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초기에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다가 우크라이나 포병과 드론에 의해 빠르게 격멸되었으나, 이후 전술을 바꿔 1~2명 단위의 소규모 이동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장에서 사용 중인 드론과 전자전을 습득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11]

한편, 북한은 한국에 위기 수준의 중대한 혼란을 유발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태세를 시험하며 취약점을 탐색할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첩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의 다양한 IT 업체, 범죄조직, 브로커 등과 공조하거나 은행의 허위계정, 온라인 게임 및 도박 프로그램, 해외에서 노트북 공장 운영을 비롯하여 해킹으로 탈취한 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신분을 위장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 매우 정교한 사이버 위협을 구사하고 있다.[12]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습득한 ‘자폭형 무인기(Loitering Munition)’와 ‘FPV(First Person View) 드론’ 전술과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전력의 결합하여 한국 방공망을 타격하고 국가 기간시설과 핵심인프라(전력, 금융, 통신)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극심한 위기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가 시급하다.

## 4. 한미동맹·다자안보협력의 재편

### 4.1. 한미동맹의 질적 전환

미국이 2025년 3월 '잠정 국가방위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고 국방부 내부용으로 배포하였는데[13] 그 내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전략 및 군사전략을 축약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 지침에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주요 위협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이 직면한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전략의 중대한 변화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인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및 재조정이 수반되어질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서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는 것으로 역할이 전환될 것이고, 그 규모 역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이 중요하지 숫자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감축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국의 인상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이어질 것이다.[14] 미국우선주의는 한미동맹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호혜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배터리, 선박 등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우리의 안보와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4.2. 한미일 및 NATO와의 안보협력 강화

한미일 3개국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준동맹' 수준의 안보협력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동 성명에서 3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3자 훈련을 연단위로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하였다.[15] 이는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만든 것으로 기존의 선언을 넘어 실무적이고 실효적인 안보협력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I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2022년 4월에는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사이버 방어,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안보를 위한 어젠다'에 합의하였다. 또한 2022년 6월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는 NATO의 핵심 정책문서인 '2022 NATO 전략개념'이 채택되었다.[16] 이와 같은 한국과 NATO와의 안보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병력 및 무기 지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 등 안보위협에 대한 상호 공동 인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한반도 유사시 유럽 국가들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외교안보 자산이 된다.

## 5.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공급망 측면의 영향

### 5.1. 에너지·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취약성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에너지 절감과 다각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EU는 기업과 가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하여 2030년 이전에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높은 것으로 우리 정부는 공급망 교란 요인을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 공관을 포함한 범 부처 차원의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광물자원 부국들과 안보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논의와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하겠다.[17]

## 5.2.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은 K-방산에 큰 기회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18]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향후 전개될 평화협상 국면이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동 보고서는 한국이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공화국 등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무기 수출 중 유럽 비중이 2017-2021년 6.1%에서 2023년 28%로 급증했고 앞으로도 대유럽 수출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분석은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의 방산 수출성과 대언론 설명(2025.12.30. 인천국제공항)에서 확인되어 지는데, 강 실장은 “2025년 외국과의 방산 계약 금액은 총 152억 달러로, 그 중 90% 이상인 142억 달러의 계약이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6월 이후 체결됐다”며 “향후에도 주요 국가들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방위산업을 포함한 전략경제 협력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는 것을 각인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19] 이는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강국 달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방향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정책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방산 특수주의 종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종전 이후가 K-방산의 진정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럽 각국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국방비 지출을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20] 2024년 유럽(러시아 포함)의 군사비 지출은 17% 증가한 6,9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4년 전 세계 군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접어들면서 유럽 전역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냉전 종식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도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영토 확장이라는 야심을 목도한 동유럽은 물론이고 서유럽, 남부-북부유럽에 이르기까지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강력한 포병화기 제조력을 갖고 있는 한국 방산 수출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한국과 유럽 간의 방산협력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4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나[21]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산 무기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메이저 리그에 진입했고, 미국과 NATO를 대신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로서 역할을 수행 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탄탄한 국내 민간 제조업 기반,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납품, 포괄적인 국내 산업 참여, 맞춤형 생산, 그리고 파트너사의 자체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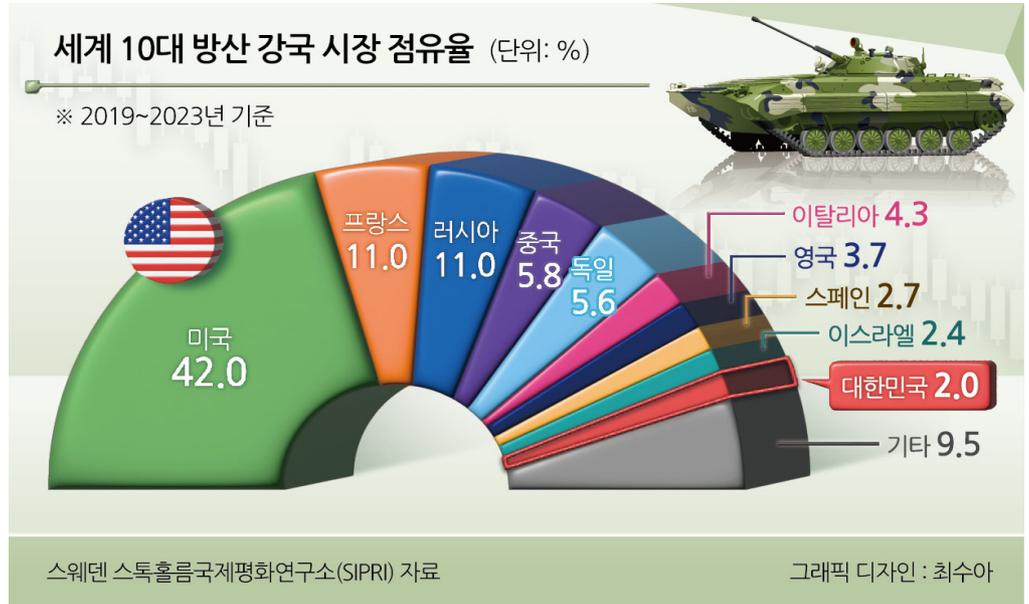


그림 3. 세계 10대 방산강국 점유율[23]

## 6. 결론

### 6.1.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안보 환경이 얼마나 취약하고 불확실한지를 증명하는 거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첫째, 힘의 공백은 전쟁을 부른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스스로를 지킬 힘과 강력한 동맹이 없을 때 평화는 지켜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개별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역내 안보 위협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전쟁이 한반도의 북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한국의 방산 수출이 유럽의 안보를 지탱하는 초연결 안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이다. 셋째, 경제와 안보는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교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중 있는 안보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K-방산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호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 확대는 물론이고, 외교적 영향력을 넓히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국가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방산 수출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달러와 국방산업 기술력은 우리 군의 전력산업 증강을 위한 R&D에 재투자되어, 국방력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와 군, 그리고 방산 기업은 지금의 수출 호조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교한 외교안보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6.2. 한반도 위기관리 대응방향 제언

첫째, 복합 위기 시대 한국은 '원칙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자강(Self-Help)의 토대 위에 동맹(Alliance)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완성하는 한편,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도입하여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상쇄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한국 외교안보 환경은 동맹과 경쟁, 다자체제와 지역주의, 경제·안보의 경계 해체라는 다층적 변화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① 한미 동맹의 재조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범 우방국가와의 정보공유, 방위산업 협력과 같은 안보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동맹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협력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② 외교 당사국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ASEAN은 공급망 다변화와 해양 협력의 거점으로, 아프리카는 핵심광물 에너지 전환의 파트너로, 중남미와는 기후·보건 협력을, 중동과는 에너지 협력이 요구된다. ③ 북·중·러와는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략적 거리조절과 타이밍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기존의 핵 및 미사일 제재에 이어 글로벌 차원의 이슈로 부각되었는 바,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은 북한과 위기관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점진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과는 미·중 경쟁 사이에서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전략적인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협력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인도적·문화적 교류, 제한적 경제 협력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복원을 모색하면서,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에 맞게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할 것이다.[24]

셋째, 인적·물리적 군사력을 강화하여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며, 에너지·식량 및 반도체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높여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사이버테러나 가짜 뉴스 등을 동원한 심리전 등 비군사적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전쟁 양상에 대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동맹국과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전쟁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등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조선일보. 3년 6개월 우크라이나戰... 양측 100만명 사상.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8/11/QAEPiWXDHNCfJFPCZN67YQ6RPE/](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8/11/QAEPiWXDHNCfJFPCZN67YQ6RPE/) (검색일 2026. 1. 18).
- [2] 김철민.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유럽, '신냉전 무대' 부상과 대응 현황.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 제63호, pp. 209-210. 2022.
- [3] 경향신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레이트 디커플링'. <https://www.khan.co.kr/article/202205090300085>. (검색일 2026. 1. 19).
- [4] 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 딜레마의 이중 연쇄효과: 북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학.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제2호, pp 69-96. 2025.
- [5] I. The Role of Artillery in a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role-artillery-war-between-russia-and-ukraine> (검색일 2026. 1. 14).
- [6] 조선비즈. 포탄 자체 생산 늘리는 유럽... 韓 방산, 현지화로 대응.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5/05/24/4W47WAG4Q5E3RNYH2WRL2MAUWE/> (검색일 2026.1.18.).
- [7] 한국개발연구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군사력 발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2025.
- [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 한반도 파급. 2024.
- [9] 국가정보원.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2024.
- [1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용맹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2024.
- [11] The New Voice of Ukraine. North Korean Troops in Kursk Learning Drone and EW Tactics. <https://english.nv.ua/nation/north-korean-troops-learn-drone-tactics-fighting-with-russia-in-kursk-oblast-50506821.html>. (검색일 2026. 1. 18).
- [12] 송태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사이버 위협 추세: 실태와 함의.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0월호, pp 31-41, 2025.

- [13] The Washington Post. Secret Pentagon memo on China, homeland has Heritage fingerprints.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5/03/29/secret-pentagon-memo-hegseth-heritage-foundation-china/> (검색일 2026. 1. 21).
- [14]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트럼프 2기 한미동맹 현대화·주한미군역할 전환과 한국의 대응과제. 2025.
- [15] 외교부.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2023.
- [16] NATO. Relations with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NATO's Partnership and Cooperation. 2025.
- [17] 김희상. 경제안보의 주요 이슈와 대응. 외교 제150호, pp. 35-48. 2024.
- [18] 심성은. 러우 전쟁 및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국회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 356호, pp. 32-33. 2025.
- [19] KBS. 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본격화...이재명 정부 방산수출 계약 142억불".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6401> (검색일 2026. 1. 24).
- [20] SIPRI. Unprecedented Rise in Global Military Expenditure as European and Middle East Spending Surges. <https://www.sipri.org/media/press-release/2025/unprecedented-rise-global-military-expenditure-european-and-middle-east-spending-surges> (검색일 2026. 2. 24).
- [21] 중앙일보. 푸틴 "한국,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공급하면 실수하는 것". <http://www.joongang.co.kr/article/25257921> (검색일 2026. 1. 24).
- [22] WAR ON THE ROCKS. A K-Arsenal of Democracy? South Korea and U.S. Allied Defense Procurement. <https://warontherocks.com/2022/08/a-k-arsenal-of-democracy-south-korea-and-u-s-allied-defense-procurement/> (검색일 2026. 1. 17).
- [23] 헤럴드 경제. 韓 한화에어로 '+190.39%' vs 美 록히드마틴 '+23.7%'... 불 뿜는 'K-방산', 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833529> (검색일 2026. 1. 14).
- [24] 이재승.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8권 제3호, pp. 25-43. 2025.